

교실 친화적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동을 통해 살펴본 예비교사들의 지속가능발전 경험 분석

지승현·남영숙[†]

한국교원대학교

The Pre-Teacher's Experienc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Seung-Hyun Ji · Young-Sook Na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classroom-friendly learning activ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find out the learner's understanding level of experienc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lassroom-friendly learning activ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is focused on the sustainable flea market is concerned about enhancing learner's understanding sustainable development. It could be emphasized a viewpoi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 possibility of expanding learner's experience in dealing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Second, this study shows also a application of the teaching & learning strategy for classroom-friendly learn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ree different group of pre-service teachers were participated in sustainable flea marker activity. It is considered to make the student be able to catch up core knowledge and value of sustainable development during the classroom-friendly learning activity.

In conclusion, this research asserts that classroom-friendly learning activ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uld make students improve the knowledge and valu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emphasized to advanc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new teaching & learning strategy.

Key words : classroom-friendly learning activity, sustainable flea market,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 서 론

1990년대 이전의 학교환경교육은 교실위주 의 전통적 수업이 주된 패러다임이었다. 그러나 실제 환경에 대한 체험을 하고, 이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야외 중심의 체험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체험환경교육이 대표적인 환경교육 교수 학

습 전략으로 발전해왔다.

최근에는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을 계기로 체험에 대한 의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체험환경교육의 주제는 금, 갯 별 등과 같은 자연환경을 직접 경험하거나, 실 제 환경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는 체험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지승현·남영숙, 2007b). 그러나 기존의 환경적 차원에 대한 강

[†] Corresponding Author : e-mail : ysname@knue.ac.kr, Tel : +82-43-230-3762, Fax : +82-43-232-7176

조점이 환경, 사회, 경제의 조화와 통합을 강조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으로 옮겨가면서 기존의 자연환경 및 환경문제 중심의 체험활동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학습자가 교육 활동 상황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철학과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남영숙·지승현, 2011).

둘째, 국내 학교현장의 경우 기존의 체험학습은 교실을 떠나 지속가능발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체험이 가능하더라도 지속가능발전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체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제적 문제 등에 대한 제한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핵심가치, 능력간의 상호작용과정을 교실현장에서 다룰 수 있는 전략적 접근방안이 필요하다(남영숙·지승현, 2011).

셋째, 지속가능발전을 사회적 관점, 경제적 관점 혹은 환경적 관점 중 하나에 치우쳐 바라보는 경향이 존재한다(Summers *et al.*, 2004; 주형선·이선경, 2011; 최혜숙·심규철·소금현·여성희, 2010). 지속가능발전 이해를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은 지속가능발전을 구성하는 각기 다른 관점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초·중등 수준의 학습자 중심에서 벗어나 고등교육 수준의 학습자를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동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대학교 환경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 주 대상이 예비환경교사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져 왔던 환경교육을 전공하지 않는 예비교사에 대한 지속가능발전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지승현·남영숙, 2010).

상기 제시한 방안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새롭게 모색하고자 하는 방안이 바로 교실 친화적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동이다. 교실 친화적의 의미는 교사가 이론으로 습득한 내용을 교실을 매개로 한 교육현장에서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는 동시에, 현장의 경험을 이론화 할 수 있는 능력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으로 예비교사 양성교육의 주요 목표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김한별, 2009). 교실 친화적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동은 앞서 제시한 교실 친화적의 의미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결합한 개념으로 교사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과 경험을 교실현장에서 적합한 형태로 구조화하고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실 친화적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장터활동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경험한 지속가능발전의 이해와 경험 수준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의 지속가능발전 이해와 수용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소비자교육과 폐기물교육을 접목한 장터활동을 고안하였다.

둘째, 대학교 교양교육 시간을 활용해 상기 개발한 교실 친화적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을 실시한 후, 예비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이해하고 경험한 내용을 유형별로 분석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일환으로 교실 친화적 장터활동을 개발하고, 2009년 2학기, 2010년 2학기, 2011년 1학기 교양강의 시간을 통해 각각 1회씩 제공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각각의 장터 활동에 참여한 2009년도 2학기 수강생 그룹 예비교사 46명, 2010년도 2학기 수강생 그룹 예비교사 43명, 2011년도 1학기 수강생 그룹 예비교사 43명이다. 장터활동 이후 예비교사들이 작성한 체험활동에 대한 활

표 1. 활동참여 대상 일반 정보

구분	참여 시기	수강생	학년분포	전공영역
A 그룹	2009년 2학기 '환경과 지속가능한 삶'	46명	1학년 30명 2학년 10명 3학년 6명	초등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불어교육, 수학교육, 기술교육, 지구과학교육, 물리교육, 가정교육, 환경교육, 체육교육
B 그룹	2010년 2학기 '환경과 지속가능한 삶'	43명	1학년 27명 2학년 15명 3학년 1명	유아교육, 초등교육, 역사교육, 국어교육, 영어교육, 일반사회교육, 기술교육, 지구과학교육, 환경교육, 체육교육, 음악교육
C 그룹	2011년 1학기 '에코캠퍼스'	43명	1학년 24명 2학년 6명 3학년 11명 4학년 2명	유아교육, 초등교육, 영어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 교육 체육교육

동수기 및 보고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교실 친화적 장터활동을 기획하고, 실제 개발하고, 각기 다른 3그룹의 예비교사그룹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하여, 예비교사들이 작성한 활동수기 및 보고서 분석을 통해 예비교사의 지속가능발전 경험을 유형화하고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그림 1).

가. 문헌연구

지속가능발전 이해를 강조하는 교실 친화적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동 개발에 필요한 이론적 속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한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학회지, 워크숍 자료집, 단행본, 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종류의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교실 친화적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동을 개발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자신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교육 활동

둘째, 환경가치와 인간가치의 연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활동

셋째, 실제세계의 작동방식을 총체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각 요소간의 상호연관성을 이해 할 수 있는 교육 활동

나. 지속가능발전 이해를 위한 교실 친화적 장터 활동 개발

앞서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이론적 고찰, 기 설정한 기준을 가지고 개발 가능한 교실 친화적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 기획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생산-소비-폐기라는 전 과정적 차원에서 나눔과 순환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연결되고, 지속가능발전의 통합적 관점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장터활동을 개발하게 되었다. 장터활동 개발을 위한 주요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눔과 순환을 다루고 있는 연구논문 및 문헌자료,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EBS, KBS)에서 방영된 지속가능발전 관련 TV 프로그램 중 관련 다큐 분석을 통해 교실 친화적 장터활동의 목표, 기본원칙, 세부 활동을 개발했다.

둘째, 장터 체험활동에 대한 목표와 세부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후, 예비교사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장터활동에 대한 세부기획을 추진하였다. 예비교사들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기초개념에 대한 강의를 지원받는 동시에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장터 이름을 공모하고, 장터활동에 필요한 세부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

다. 장터 활동 적용 및 평가

2009년, 2010년, 그리고 2011년 해당 강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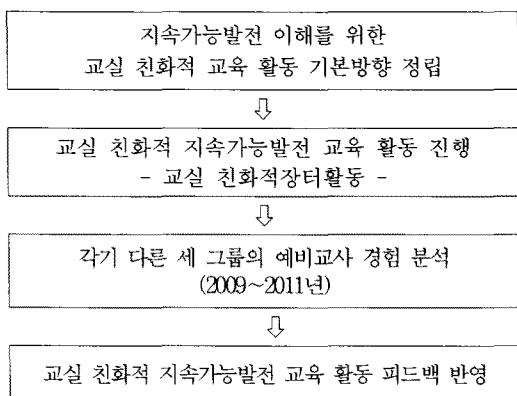


그림 1. 연구절차도

간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일환으로 개발한 장터활동을 진행하였다. 이후 세 그룹의 장터활동에 참가한 예비교사들의 수기와 보고서를 수집하였다. 연구진 내부검토와 2명의 환경교육 전문가의 외부검토를 통해 상호교차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이해하고 경험한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를 범주화하고 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교실 친화적 장터활동의 고안

가. 교실 친화적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동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한(sustainable)의 의미와 발전(development)의 두 개념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다(Selby, 2006).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는데 두 개념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하는지, 어느 단어에 주안점을 두는지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는 방식은 달라진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차원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경제-사회라는 세 가지 차원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교실 친화적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동이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의 모습은 환경사회학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이다. 산업화 시대 이후 자연과 분리되어 왔던 인간의 삶을 자연과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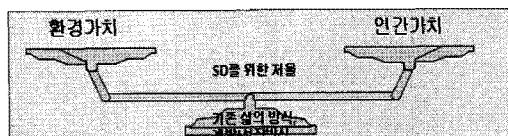


그림 2. 지속가능발전해석 모형

연결하기 위해 환경·경제·사회시스템을 순환성, 다양성, 상호관련성을 기반으로 삼는 생태계적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는 발전을 의미한다(지승현·남영숙, 2007a).

첫째, 기존의 기술 중심, 물질 중심의 경제적 합리성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의 방식, 개발과 성장과정에서 생태적 지혜에 근거해 환경가치와 인간가치를 추구하는 발전상을 지향한다.

둘째, 환경-경제-사회라고 하는 3가지 축을 서로 동등하게 접근하는 일반적인 지속가능발전 해석모형과 달리 Lutzkendorf and Lorenz(2005)가 제안한 지속가능발전 해석모델과 같이 경제적 활동을 가장 중심에 놓고 경제적 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로 사회, 환경적 차원을 제안하는 지속가능발전 해석모델을 지향한다.

교실 친화적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동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완전한 수준의 이해를 지향한다. 구체적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 수준의 강조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가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자신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경험을 제공한다.

둘째, 학습자가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지식적 수준의 명시적 교육과 정의 차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이 지향하는 환경가치와 인간가치를 경험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잠재적 교육과정 차원을 지향한다.

나. 교실 친화적 장터활동

교실 친화적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개발한 교실 친화적 장터활동은 교실이라는 공간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이념과 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교실 친화적 장터활동 과정

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이객체의 역할을 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축소모형세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1)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교실 친화적 장터활동의 기본원칙은 크게 명시적 교육과정 차원과 잠재적 교육과정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 학교에서 선도해 온 기존알뜰바자회의 기원은 1997년 IMF를 계기로 활성화되었으며, 기존의 소비지향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절약과 나눔의 소비자교육을 강조하는 경제운동적인 관점이 주를 이룬다(문병운·문윤섭, 2009). 그러나 본 활동은 기존의 절약중심, 교환가치 중심의 장터활동과 달리 물건 사용가치 중심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발전 지식과 가치를 제공한다.

둘째, 교사가 중심이 되어 모든 교육 활동을 이끌어가는 기존의 방식을 지양하고, 프로그램 기획단계와 추진단계에 학습자가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참여하는 거버넌스 요소를 강조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학습자 중심의 집단토의를 통해 자신들이 진행할

장터이름을 직접 짓고,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이 지향하는 수평적 가치와 협력의 방식을 경험하도록 한다.

2) 주요 활동

본 활동을 구성하는 주요활동으로 에코 마니 또 활동, 물품소개 및 물물교환 활동을 통한 나눔과 순환의 가치 공유, 장터활동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물품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는 기부활동, 활동과정에서 수강생들 간의 의견 교환 및 체험 수기 작성 등을 수행하였다. 이 모든 활동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명시적 교육과정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내용지식을 제공하고, 잠재적 교육과정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가치와 의미가 상호 연결되도록 각 활동 간의 상호연계성과 순환성을 중시하였다.

2. 예비교사들의 지속가능발전 경험 유형별 분석

각각의 그룹별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실 친화적 장터활동을 수행한 후 각 그룹별 예비교사들이 기술한 체험수기의 내용을 유형별로

표 2. 교실 친화적 장터활동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목 표	기본원칙	주요 활동
2009년 아름나눔 장터*			
2010년 아무거나 장터**			
2011년 유용지물 장터***			
	지속가능발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시적 교육과정으로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식과 가치 전달 - 환경가치, 인간가치 ·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가치와 의미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내 지속가능발전 세계 구축 - 거버넌스 원리를 적용한 참가자 참여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코마니또 활동 · 물품소개 및 물물교환 활동 진행 · 아름다운 가게 물품 기증 · 활동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견교환 및 체험 수기 작성을 통한 반성적 사고 수행

* 아름나눔 장터 : 아름다운 나눔을 지향하는 장

** 아무거나 장터 : 아) 아끼는 물건이든 아무것이든, 무) 무엇이든지 가져와서, 거) 거래할 수 있는, 나) 나눔의 장터

*** 유용지물 장터 : 불필요한 물건이 유용하게 변하는 지속가능한 장터

분류하였다. 그 결과, ‘난생 처음 경험해 보는 새로운 활동에 대한 반성적 사고’, ‘이전에 경험한 유사활동과 연계한 반성적 사고’, ‘지속기능 발전에 대한 교육적 경험’, 마지막으로 ‘개인 수준의 지속기능발전 경험 확대 가능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예비교사들의 지속기능 발전 경험을 유형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평생교육적 관점의 교육경험 의의

전 생애 주기의 평생교육 관점에서 볼 때 고등교육 수준의 지속기능발전교육은 참가자들이 초·중등학교 수준에서 겪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거나 이미 이전 교육단계에서 겪었던 과거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형식교육 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지승현·남영숙, 2010).

1) 새로운 경험으로서의 장터활동

프로그램의 경험 유무에 대한 기준을 놓고 볼 때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경험한다고 밝힌 예비교사들의 유형이 있었다.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 예비교사들은 지속기능발전을 강조하는 장터활동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낯설었지만, 그 경험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눔장터라는 것은 처음 경험해본다. 자기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이 가져온 물건 중에 나에게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는 시스템. 솔직히 나에게 필요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 없을 줄 알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져온 물건 역시 나에게 필요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나에게 필요 없었던 작은 가방들은 다른 분들이 바꿔 가시면서 모두 고맙다고 하셨다. 좀 기분이 묘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2009년 아름나눔 장터 참가자 수기 중

특히 2010년 참가자의 경우 이전에 전혀 관심조차 없었던 물물교환이라는 행위에 담긴 순환의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밝

혔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생겼음을 기술하였다.

사실 ‘아무거나’ 장터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물물교환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고, 물건을 비롯하여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어떻게 순환되는지에 무지했다. 장터를 경험한 후에야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일회용 물건들로 가득한 사회인지 알았다.

2010년 아무거나 장터 참가자 수기 중

2011년 참가자 중의 한 명은 도시생활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에 대한 느낌을 기술했다. 교환을 통한 나눔과 소통의 의미에 대한 만족을 제시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관련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아쉬움을 기술하였다.

유용지물 장터를 통해 교환만으로도 서로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시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회를 접해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고, 도시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2011년 유용지물 장터 참가자 수기 중

2) 이전 활동과 장터활동을 연계한 반성적 사고

장터체험활동과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일부 예비교사들은 이전 활동과 새로 추가된 경험을 서로 연계하여 반성적 사고를 기술하였다. 초·중등교육 차원에서 경험했던 아나바다 활동, 대학교 입학 이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한 유사활동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기술했다. 기숙사 패스 점수에 연연했던 교내 장터 경험, 의무감에 그냥 참가만 했던 초·중등학교에서의 아나바다 행사 경험,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단순한 차원으로 경험했던 중고물품 거래 장터나 바자회 활동을 지속기능발전과 연계한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반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눔 장터는 사회의 지속기능한 삶에 큰 연관

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나눔 장터의 홀륭함을 알게 되니 작년 기숙사에서 나눔 장터에 팔 물건을 기부하면 기숙사 폐스 점수를 준다고 해서 보이는 물건을 아무거나 기부한 내가 부끄러웠다.

2009년 아름나눔 장터 참가자 수기 중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아름나눔 장터’에 대한 화두를 던지실 때 어린 시절의 ‘아나바다’ 행사를 떠올리며 추억에 젖었다. 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 친구와 교환하라는 학교 선생님의 말씀에 거의 의무감에 사로잡혀 별 생각 없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몇 개 주섬주섬 챙겨가 친구들과 교환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왜 ‘환경과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수업에서 이러한 행사를 치르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2009년 아름나눔 장터 참가자 수기 중

평소에 주변에서 열리는 바자회 같은 곳에 참여할 때는 그것들을 지속가능발전에 관련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거창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다른 사람과 교환함으로써 나와 상대방은 필요했던 물품을 얻었다. 하마터면 쓰레기통에 버려질 뻔 했던 물품들이 다시 요긴하게 사용되며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누가 보면 단순한 장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에는 확실히 나눔과 순환이라는 주제가 잘 녹아들어가 있었다.

2010년 아무거나 장터 참가자 수기 중

예전에도 동네 공원에서 하는 알뜰 장터나 ‘중고 나라’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고물품을 구입해 본 적이 있는데, 이번처럼 등그렇게 둘러앉아 돌아가며 각자의 매물 스토리도 듣고 물물교환식으로 바꾸는 방식이 훨씬 인간미 있고 재미있는 것 같다.

2011년 유용자물 장터 참가자 수기 중

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경험 의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경험은 명시적 교육과정 차원과 교실 친화적 교육 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이객체의 역할을 하는 잠재적 교육과정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경험, 즉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내용 지식적 수준, 지속가능발전이 지향하는 가치적 수준,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능적 수준의 경험을 들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내용 지식적 수준

첫 번째 유형으로는 쓰레기와 폐기물, 자원 순환, 3R(감량화, 재활용, 재이용)과 같은 자원 순환형 폐기물 교육과 관련한 지식을 중심으로 자신이 이해한 지속가능발전을 밝히는 예비교사들이 있었다.

2009년 아름나눔 장터 참가자의 경우 평소 환경교육과 거리가 먼 역사교육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을 통해 제시했던 3R(감량화, 재활용, 재이용)의 맥락과 의미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광고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이른바 신상을 구매하라는 욕망을 불어넣는다. 이런 과정에서 3R을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오늘 한 아름나눔 장터라고 생각한다. (이하중략) 아름나눔 장터와 같은 일종의 물물교환의 형식을 떤 시장을 통해서 각자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을 얻어간다면 이것이야 말로 3R이 잘 실현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2009년 아름나눔 장터 참가자 수기 중

2010년 아무거나 장터 참가자는 평소 느끼지 못했던 자원순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변화를 보여주었다. 수기를 통해 아름다운 가게의 의미, 쓰레기와 폐기물의 차이, 그리고 자원순환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맥락과 강조점을 제시하였다.

고등학교 시절 아름다운 가게에 대해서는 들어 봤지만 한번도 가 보지도 못하고, 오며가며 여러

생활용품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것만 보았지, 어떤 곳인지도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곳이 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재활용되는 물품들이 새 생명을 갖는 나눔의 가게라는 것을 알았다.(이하 중략)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물건들, 쓰다가 고장이 나서 버려야 하는 물건들이 재활용되고 다른 모습으로 둔갑하여 다른 필요한 이들에게 적은 값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쓰레기와 폐기물, 자원순환의 의미에 대해 느꼈다.

2010년 아무거나 장터 참가자 수기 중

2011년 유용지물 장터 참가자의 경우 나에게 필요 없는 쓰레기가 남에게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물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물물교환이 지니는 환경적 가치(자원절약, 폐기물 감량)를 깨닫게 되었음을 밝혔다.

이번 유용지물 장터를 통해서 자신에게 무용지물인 것들이 쓰레기가 되는 대신 재활용같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깨달았다. 이러한 물물교환을 통해서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원소비량을 줄일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 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으니 정말 물물교환이 여러모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2011년 유용지물 장터 참가자 수기 중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에 대한 고찰이다. 일부 예비교사들은 지속가능발전에 내포되어 있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간의 형평성에 관한 의미를 발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참가자 중 2010년 아무거나 장터와 2011년 유용지물 장터활동에 참여한 예비교사는 본인들이 이해한 지속가능발전이 추구하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에 놓여 있는 형평성 의미를 고찰하였다.

하나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연 자원을 이용할 것이고, 또 하나 이상의 자연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재사용, 재활용이 이루어진다면 이용될 자원 하나를. 파괴

될 자연 하나를 보류해 두게 혹은 보존해 두게 되는 것이다. 이전 우리가 흔히 지속가능발전의 정의로 알고 있는 미래세대의 필요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하는 것이라는 것도 만족시킨다.

2010년 아무거나 장터 참가자 수기 중

소유욕을 조금만 버리고,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은 나누고 자신에게 불필요한 물건은 비울 줄 아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러한 것들이 다음세대를 위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를 양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2011년 유용지물 장터 참가자 수기 중

2) 지속가능발전이 지향하는 가치적 수준

2009년 아름나눔 장터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자원순환의 가치 이외에 숨겨진 장터활동의 의미, 즉 사람과 사람간의 교류와 자원순환 가치를 반영한 근본적인 행복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 장터를 마치고 난 후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받아서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고, 또한 자신이 쓰지 않는 물건이 다른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뿌듯해 하는 표정들이었다. 결국 우리는 아름나눔 장터를 함으로써 자원 순환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사회라는 공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2009년 아름나눔 장터 참여자 수기 중

2011년 유용지물 장터 참가자는 비움과 나눔의 정신을 통한 환경보존의 의미와 타인과의 교류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됨을 밝혔다.

에코장터를 행하며 보존과 나눔, 타인과의 교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비우고 타인과 나눌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아름다운 장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때라고 생

각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가 나눔을 행하고 환경의 보존을 행하게 되고, 타인과 색다른 교류를 할 수 있었다. 교수님의 말씀대로 강의시간에는 뒷모습만 보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고, 물건을 사고팔며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 친해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나눔과 보존이 타인과의 교류를 함께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2011년 유용지물 장터 참가자 수기 중

3) 사고방식을 포함한 기능적 수준

2009년 아름나눔 장터에 참가했던 한 예비교사는 참여와 실천의 의미, 미래세대를 고려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태도 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과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수업과 이번 활동을 통해 많은 생각이 바뀌었다. 단순히 컵을 이용하는 것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무엇을 버릴 때도 나에게는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가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을지 고민해 보게 됐다. (이하중략) 나와 같은 작은 실천을 하는 사람이 나에서 그치지 않고, 나를 보고 내 친구가 작은 실천을 함께 하고, 또 내 친구의 친구가 작지만 큰 실천을 해나간다면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바뀌지 않을까?

2009년 아름나눔 장터 참가자 수기 중

2010년 참가자를 포함한 일부 예비교사들은 기존의 화폐 중심의 교환가치가 아니라, 물건 자체가 지니고 있는 사용가치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했다. 이를 통해 해당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장터활동이 추구하는 대안 경제적 사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번시간에 '아무거나 장터'란 이름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물건들을 장터에 내놓아 서로 교환하는 행사를 했다. 처음엔 가격을 매겨서 사고파는 줄 알아서 내가 내놓은 물건이 얼마의 값어치를 가질까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행사를 해나가면서 드는 생각은 서로가 필요 없어 내놓은 물건들은 교환하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어진 각각의 물건들은 같은 가치를 가질 수도 있겠다는 것이다.

2010년 아무거나 장터 참여자 수기 중

처음 이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을 때, 내가 알고 있던 장터 프로그램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초등학교 때 이것과 비슷한 프로그램은 위폐로 바꾸어서 물건을 사는 식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이 프로그램은 물물교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이었다.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과 나에게 필요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치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바꾼다는 것이 신선했고, 의미 있어 보였다.

2010년 아무거나 장터 참여자 수기 중

2011년 유용지물 장터에 참가했던 한 예비교사 역시 지속가능발전 실천에 대한 의견을 펴려고 있었다. 이 예비교사는 물건 이면에 숨겨져 있는 사람의 가치관을 발견한 느낌, 단순한 물건교환에 그치지 않고 수평적 관계에서 공존의 느낌을 가지고 장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느낌을 토대로 막연히 어렵게만 느꼈던 지속가능발전이란 것을 어쩌면 삶 속에서 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음을 밝혔다.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놓은 물건을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물건 하나에도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성격이 묻어난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중략)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존하였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장터를 진행하였다. 또,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이 새로운 의미를 지나게 되는 자원 순환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개인이 쉽게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1년 유용지물 장터 참가자 수기 중

다. 개인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경험 확대 가능성

일부 예비교사들은 교실 친화적 장터활동 과정에서 경험한 지속가능발전을 추후 자신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 자신의 교육 활동에 이러한 활동을 반영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2009년 아름나눔 참가자 중의 한 명은 재미와 흥미라는 관점을 가지고 행사에 대한 의미를 기술하고 있었으며, 여기서 느꼈던 즐거움과 기쁨을 훗날 교사의 입장에서 학습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약간의 흥정(?)을 거쳐 가며 내가 교환에 성공한 물품들은, 운이 좋게도 내가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던 물품들로 되어 있었다. 참여 자체로도 꽤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행사였지만, 거기에 물물교환도 너무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느낀이 즐거움과 기쁨을, 나중에 내가 교사가 되어서 맡게 될 학급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아름다운 나눔 장터 행사를 열어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2009년 아름나눔 장터 참가자 수기 중

2010년 아무거나 장터 참가자는 단순히 행사 진행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행사 속에 담겨져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훗날 자신의 교육 활동을 통해 이를 실현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내가 초등교육과인데, 내가 교사가 되어 현장으로 나갔을 때, 이런 프로그램을 일 년에 두 번 정도는 꼭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학생들에게는 장터 운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것들도 함께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2010년 아무거나 장터 참가자 수기 중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교실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경

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실 친화적 장터활동을 운영한 후 예비교사들이 작성한 활동수기 분석을 통해 그들이 경험하고 이해한 지속가능발전의 내용과 의미를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다.

대학교 교양교육을 통해 본 활동에 참여하게 된 예비교사들은 자신들이 이해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경험 수준을 제시했다. 동일한 프로그램인 동시에 해마다 다른 명칭으로 운영된 각각의 장터활동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참여 그룹과 2010년 참여 그룹, 2011년 참여 그룹은 비슷한 패턴의 이해수준과 경험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를 대부분은 본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지식 이외에도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가치와 기능에 대한 경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이전 유사경험과 연계하여 이전 활동에서 놓쳤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메시지를 새롭게 자각하거나, 난생 처음 경험하는 새로운 활동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는 반성적 사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둘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명시적 교육과정과 관련 활동기획과 준비 그리고 실행과정을 중심으로 한 잠재적 교육과정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이 전달하고자 했던 지식적 차원, 가치적 차원, 기능적 차원의 교육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순환을 매개로 한 절약과 자원보존의 환경적 가치, 나눔을 매개로 한 상호교류의 인간적 가치를 서로 연결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일부 예비교사들의 경우 본 활동에 대한 경험을 자신의 일상생활 혹은 미래 교직 생활에 수용하고 실현하고 싶은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교실 친화적 장터활동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이해하고 경험한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교실이라고 하는 장소적 특성과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내용적·가치적 특성이 결합한 교실 친화적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동의 교육적 의의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활동을 통해 명시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경험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학습 환경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 축소세계모형이자 교시친화적 교육 활동으로서의 교수학습 전략 및 수업활동콘텐츠로서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발전 이해를 위한 다양한 교실 친화적 교육 활동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속가능발전 지식을 현실에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는 교실 친화적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동 개발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새로운 경험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교실이라고 하는 제한된 학습 환경 내에서 학습자 스스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과 경험을 구조화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교실 친화적 지속가능발전교육 방안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한별(2009). 교실 친화적 교사의 능력 요소, 교실 친화적 교사양성 기본체제 수립을 위한 세미나, 9-16.
2. 남영숙, 지승현 (2011). 지속가능발전 이해를 위한 프로젝트 학습의 개념과 의미, 환경교육, 24(2), 21-34.
3. 문병운, 문윤섭 (2009). 중학교에서 환경친화적인 소비자교육을 위한 실천 방안-알뜰 바자회를 중심으로-, 환경학교육연구, 13(1), 1-14.
4. 주형선, 이선경 (2011).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초등 예비 교사들의 인식, 환경교육, 24(1), 102-113.
5. 지승현, 남영숙 (2007a).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방향 탐색, 환경교육, 20(1), 62-72.
6. 지승현, 남영숙 (2007b). 평생교육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 방안 연구, 2007년 한국환경교육학회 후반기 학술발표논문집지, 98-104.
7. 지승현, 남영숙 (2010). 나눔과 순환에 대한 대학생 장터 체험활동을 통해 살펴본 대학교 지속가능발전교육 시사점, 2010년 한국환경교육학회 상반기 학술발표논문집지, 116-122.
8. 최혜숙, 심규철, 소금현, 여성희 (2010). 초등 예비 교사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실천 의지에 대한 조사 연구, 환경교육, 23(2), 129-144.
9. Lutzkendorf, T. & Lomez, D. (2005). Sustainable property investment valuing sustainable buildings through performance assessment, *Building & Information*, 33(3), 212-234.
10. Selby, D. (2006). The firm and shaky ground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0(2), 351-365.
11. Summers, M., Corney, G. & Childs, A. (2004). Student teacher's concept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tarting-points of geographers and scientists, *Educational Research*, 46(2), 163-182.

<WEB SITE>

- 「하나뿐인 지구」 <http://home.ebs.co.kr/hana/>
 「환경스페셜」 <http://www.kbs.co.kr/ltv/sisa/environ/>

2011년 9월 14일 접수

2011년 9월 29일 심사완료

2011년 9월 30일 게재확정